

2017.2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7년 2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7.2.28	대전MBC 대회의실	6/10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정민근, 정철상, 장백기, 이승선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대표이사, 오승용 경영기술국장, 장래균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최종명 방송기술부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7	-	-	14	-	14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1	3	-	14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6건	6건	2,3월
교양	특집 다큐멘터리 로컬리즘 구현할 수 있도록	현재 제작 중 특집 다큐에는 우리지역 화백 장욱진, 라디오 특집드라마 윤봉길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2,3월
교양	원자력 안전문제 교양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지길	3/2 시사플러스에서 “대전 원자력 안전한가요?” 방영	3월
교양	로드 다큐멘터리 ‘테마기행 길’ 시청자들에게 테마가 있는 가볼만 한 곳 소개	2/9 무진장, 2/23 괴산, 3/2 강진 지역을 돌면서 각 지역 가볼만한 장소 소개	2,3월
보도	대선주자 관련 취재물 더 많이 노출	뉴스데스크 2/16 안희정, 안철수 중원 경쟁 3/2 충남기초의원 안희정 지지 등 보도	2,3월
보도	화재관련 보도 신속하게, 화재예방도 부각시켜 주어야	뉴스데스크 2/28 천안공장 화재, 3/4 호서대 입주기업 화재, 3/5 예산찜질방 화재 보도, 예방경각심 함께 보도	2,3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주제에 걸 맞는 자료화면 활용	토크&조이 프로그램 자료화면 삼입 2/25 가수 김장훈 3/4 방송인 유인경 등 자료화면 활용	2,3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6. 5. 31. ~ 2017. 5.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정민근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대덕연구개발특구 기관장협의회	과학기술단체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원	정철상	호서대학교 청소년문화상담학과 교수	(재)청소년과 사랑사랑충남지회	청소년단체	
위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과학기술단체	
위원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한국방송학회	언론관련단체	
위원	박정훈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신종성	골프존 네트워크 대표이사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	강은혜	대전YWCA 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2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날씨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 프로그램에서 2번 씩 안내해도 무리가 없다. 그만큼 다방면에서 날씨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p> <p>일반적으로 기상 캐스터가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한 주간의 날씨를 전할 때 오늘의 날씨부터 전한다. 화면상에 오늘의 날씨와 현재 기온, 낮 최고 기온 몇 도가 예상 된다는 방법은 중앙이나 지역 방송사가 동일하다.</p> <p>그런데 중앙과 대전MBC의 오늘의 날씨 화면에서 한 가지 작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중앙사에선 날씨 화면 상단 구석에 '서울 .C' 라고 표기돼 있는 데 대전MBC의 오늘의 날씨 화면엔 '대전 .C' 표기가 없다. 시청자들은 습관적으로 방송사가 위치한 지역을 대표 날씨로 인식 하게 된다.</p> <p>캐스터가 화면상의 최저 지역은 어디, 대전의 한낮 최고 기온은 몇 도라고 얘기 하지만, 이어지는 지역별 날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앞서서 그럴 필요는 없을 듯하다.</p> <p>가장 많은 시청자가 몰려 있는 곳, '대전 .C'만 표기해 놓으면 될 일이다.</p> <p>그리고 지역별 날씨가 이어지면 된다(김학선).</p>	<p>시청자들이 날씨정보에 관해 서울과 지방의 차이를 혼동하지 않도록 제작에 유념하겠다.</p>			
교양	<p>방송 현장에서 ' 방송 언어' 란 어떤 특수한 말이 아니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매일 쓰고 있는 일상어에 불과하다.</p> <p>따라서 방송 언어의 특징 중에는, 표준어, 구두어(음성언어)와 쉬운 말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p> <p>그러나 우리의 방송 현장에서는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방송 언어의 무질서에 노출돼 있다.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레 우리 일상에 들어와 있다.</p> <p>방송 언어는 생각하게 하는 말 이어서는 안 된다. 방송 언어는 쉽게 풀어야 한다. 듣는 사람의 이해를 가로 막는 난해한 한자어나 익숙하지 않은 과학 관련용어들, 최근 들어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부쩍 늘어나고 있는 줄임말 등등...</p>	<p>방송 언어는 그 영향력이 지대하므로 올바른 사용이 아주 중요하다.</p> <p>방송 출연자(진행자, 리포터, DJ)에게 올바른 언어 구사를 위한 꾸준한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교육뿐 아니라 시청자를 위해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는 퀴즈 코너를 통해 맞춤법, 바른 표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진행자가 예시를 통해 일상에서 틀리기 쉬운 맞춤법 등을 전달토록 하겠다.</p>	○		

	<p>writer나 reader들이 앞장서서 우리말의 순화 작업, 올바른 사용에 나서야 한다. 방송인 이라면 바로 잡아줘야 할 책임이 있다. 방관해서는 안 된다.</p> <p>특히, TV 매체의 경우는, 화자(speaker)의 말이 그대로 자막으로 재생되고 있어서 우리말의 올바른 사용에 더 신경이 쓰인다. 때로는 화자의 말과 자막이 달리 표현돼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p> <p>습관적으로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일상에서 많이 접하게 되면서 맞고 틀림의 차이를 무시해 버린다. 그 흔한 예를 몇 가지 들어 보면, 바람과 바람의 차이: hope의 뜻을 가진 우리말은 ‘바라다’ 이지 ‘바래다’가 아니다. 색깔이 흐려지는 ‘바래다’는 전혀 다른 말이다. 바라다의 명사형은 ‘바람’ 이고 , ‘바래다’의 명사는 ‘바람’이다.</p> <p>다르다와 틀리다: 주변의 상당수가 그 차이점을 구분 치 못하고 ‘틀리다’로 몰아간다.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않다 의 ‘다르다’와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의 ‘틀리다’의 사전적 의미를 지나치고 있다.</p> <p>야채와 채소: 이 둘은 의미상 별반 차이는 없다. 그런데 ‘야채’라는 일본식 한자어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채소’를 밀어내면서 대부분이 ‘야채’로 말하고 있다.</p> <p>화자는 ‘야채’라고 하는데 자막은 ‘채소’로 표기되고, hope란 뜻으로 ‘바람’이라고 말하는데 자막엔 ‘바람’으로, ‘틀리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막에는 ‘다르다’로 나온다. 별것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그것들. 일상에서 뜻을 잘 모르고 자주 쓰는 말이나 어렵פות이 알고 있어 엉뚱한 데 갖다 붙여 쓰는 말들...</p> <p>매체 구분 없이 궁금해 하는 시청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바로 잡아 주어야 한다(김학선).</p>				
<p>교양</p>	<p>2월 2일 “테마기행 길”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떠나는 춘천여행이라는 부제로 방송하였다. 부제목이 신선하고 스마트폰을 어떻게 활용하여 기행을 떠날지 궁금하였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일정을 짜고 맛집을 찾아 올 거라는 생각을 하고 봤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 떠난다는 주제를 가진 프로그램이었다. 스마트폰용 렌즈를 활용해 해당 장소에서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왔는</p>	<p>‘테마기행 길’은 지역MBC 10개사가 공동 기획,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각 지역의 풍성한 자연, 문화, 역사를 소개하는 기행 형식이다.</p> <p>우리나라 국민 중 스마트폰 이용자는 3천만 명이 넘는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제작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p>			

	<p>데 춘천의 명소에서 사진을 찍었으면 더 좋았겠다. 다음 장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촬영해 내보냈지만 이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내용은 없어 아쉬웠다. 기대하고 봤지만 부제목을 듣고 생각한 소재가 아니어서 아쉬웠던 부분은 있었다. 다음번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행을 떠나는 방법을 제작해도 좋을 듯싶다(성정모).</p>			
<p>교양</p>	<p>건강플러스에서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봄동으로 시작하였다(2월 25일). 봄동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봄동 태국식 샐러드와 봄동 삼겹살찜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 주었는데 요리 만드는 과정과 해설이 좀 더 매끄럽다면 좋겠다. TV주치의 시간에는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이 흘러 일상생활이 불편한 눈물길 막힘을 주제로 방송을 했는데 전문가와 함께 적절한 사진을 보여주어 보기에 좋았다. 햇갈릴 법한 질환의 차이, 치료방안, 확인 방법 등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법한 질문을 많이 해소해 주었다. 주변에서도 종종 보인 눈물길 막힘인지라 관심 있게 봤다(성정모).</p>	<p>건강플러스는 유익한 건강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맛있는 처방전’에서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다.</p>		
<p>교양</p>	<p>시사플러스에서 방송된(2월 9일) ‘달라진 운전면허시험 모두가 안전하게’는 엄격하게 변경된 운전면허시험과 관련하여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시험이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 유용한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좋은 내용이었다. 덧붙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지 등과 함께 이견을 가지고 있는 관련 단체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계속되는 의대 열풍, 장밋빛 미래? 구직난, 삶의 질, 직업의 안정성 등 현실세계의 어려움 때문에 이공계통의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의대에 몰리는 현상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바, 특히나 이공계 계통의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의대에 몰리는 현상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바, 이공계 계통의 최고 대학이라 할 수 있는 KAIST가 대전에 위치하고 있어 이공계 대학의 어려운 점도 논의하였다(성정모).</p>	<p>시사플러스는 대전MBC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2008년 시작한 이래 수많은 제작진이 지역의 건전한 의제 설정, 약자에 대한 관심, 공동체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기에 충실한 팩트 체크를 기본 전제로 공정성, 균형감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p>	○	

<p>보도</p>	<p>사업상 바쁘다보니 TV 시청하기가 쉽지는 않다. 서울과 대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실시간으로 대전MBC 뉴스를 웹으로 확인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또한 SNS으로 대전MBC 뉴스를 접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MBC 뉴스를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길 바란다(신종성).</p>	<p>진화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발맞춰 대전MBC 뉴스도 다양한 플랫폼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주요 포털에서 대전MBC를 검색하면 전체 뉴스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 대전MBC를 검색해 친구맺기 등을 하면 손쉽게 대전MBC 뉴스를 받아볼 수 있다.</p>			
<p>보도</p>	<p>탄핵 정국을 맞아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나라가 어수선하다. 집회 참가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일진데 의견이 나누어 있어 보는 마음도 착잡하다. 팩트로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를 비교하여 한 번 정리 해주었으면 좋겠다(신종성).</p>	<p>지역에서 진행되는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를 꾸준히 다루고 있다. 각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뉴스 제작을 추진하겠다.</p>	○		
<p>보도</p>	<p>시사토론 M(2월 26일)에서 “유통 지각 변동, 상생 방안을 찾다” 라는 타이틀로 토론을 가졌다. 현대, 신세계, 롯데, 한화, 이랜드 등 우수 대기업 유통업체가 서로 뛰어드는 상황에서 중소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입지는 점점 좁혀질 수밖에 없을 듯싶다. 대기업 유통업체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는 총칭의 변화를 짚어보고, 과열경쟁이 아닌 지역 공동발전을 견인하는 유통의 장이 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기 위해 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마무리가 약하다.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도 애매하다. 조영상(공주대학교 산업유통학과 교수), 이규원(대전시청 일자리경제과 사무관), 구범림(대전시장상인연합회 회장) 등 패널의 역할도 약한 듯하다(박정훈).</p>	<p>토론은 패널의 역할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적절한 지식과 의견을 가진 사람을 패널로 섭외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 모든 사람을 검증한 뒤 섭외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 패널 섭외에 좀 더 신경을 써 토론 내용이 풍성해 질 수 있도록 하겠다.</p>	○		
<p>교양</p>	<p>‘한글 패션’의 아버지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 이상봉씨가 “허참 토크&조이” 출연자로 나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구수하게 전해주었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는 지역을 떠나 다양한 분들이 자기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전해주어 유익한 시간을 제공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젊은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이 다소 적다는 점이다. 이 날 방청객에도 젊은 방청객은 단 2명 뿐이었다. 방청객도 출연자가 누구이냐에 따라 젊은 방청객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제작을 해 주길 바란다(박정훈).</p>	<p>젊은 시청자가 공감할 인물이 적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토크&조이’는 한 인물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프로이다. 1시간 분량이기엔 인물의 캐릭터가 프로를 좌우한다. 그동안 젊은 출연자를 섭외하기도 했지만 삶의 깊이가 알아 쉽지 않다. 그래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전국적인 인물뿐 아니라 지역의 참 인물 발굴에도 계속 신경 쓰겠다.</p>	○		

<p>보도</p>	<p>대전MBC가 오랫동안 금강보호캠페인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환경보호와 자원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중시해 왔다고 판단된다.</p> <p>국토교통부는 4대강 수질 악화와 녹조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보 관리 수위를 ‘양수제약수위’에서 ‘지하수제약수위’로 낮춰 2~3월 시범적으로 물을 방류하고, 문제가 없으면 4월부터 연중 운영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p> <p>충청남도는 보 관리 수위가 주변 농경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수제약수위로 낮춰 운영하면, 연중 방류량이 증가해 하천 생태계 복원에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p> <p>지난 2011년부터 실시한 ‘금강 수환경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결정이 나왔는데 대전MBC에서 금강의 변화를 집중 취재하여 보도했으면 좋겠다(이상진).</p>	<p>4대강 사업 관련 사항은 대전MBC가 몇해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적 보도해오고 있습니다.</p> <p>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취재를 통해 금강 수질 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p>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청년창업 관련 소식을 전달해 주었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창업 문제를 다루어주었다.</p> <p>우리 사회에는 청년 창업 문제뿐만 아니라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창업문제도 중요하다.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취업, 창업 정보도 소개를 해 주길 바란다(강은혜).</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그동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개를 간혹 하였다. 그러나 청년 창업에 비해 비중이 약했다. 말씀하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 창업 정보에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 라디오에서는 매년 ‘여성 취업, 창업박람회’를 매년 생방송하고 있다.</p>	○		
<p>보도</p>	<p>방사성 핵폐기물 관련 뉴스를 모니터하였다. 대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라서 더욱 관심을 갖고 시청하였다.</p> <p>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하여 보도한 것이나 원자력안전기술원 문제점 등을 계속 보도한 것은 보기 좋았다.</p> <p>지역의 현안 문제를 잘 빠르게 보도해 시청자의 궁금한 점을 풀어준 것은 좋았다.</p> <p>계속 지역의 이슈를 재빠르게 접근하고,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들을 집중취재 해주길 바란다(강은혜).</p>	<p>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사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취재할 예정이다. 추가 고발 내용은 물론 항구적인 대책까지 전반적으로 보도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노력하겠다.</p>	○		
<p>교양</p>	<p>1년 넘게 진행된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형식이 지나치게 고정되어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개편의 필요성을 느낀다.</p> <p>신선한 변화로 시청자들에게 새롭게 변신한 모습을 선보여주길 바란다(성정모).</p>	<p>매년 봄, 가을에 정기 개편을 한다.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닌 시청자에게 사랑받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겠다.</p>	○		

<p>보도</p>	<p>지역 지상파방송 KBS, TJB, 대전MBC 저녁 8시, 9시 뉴스를 모니터하였다. 대전MBC 뉴스가 다양화된 점은 고무적이다. 보통 지역 뉴스라 하면 식상하고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습성이 있는데 최근 대전MBC 뉴스가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반갑다. 기획뉴스, 입체적인 뉴스 등을 계속 발굴해 전달하여 주길 바란다(성정모).</p>	<p>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품격 있는 뉴스 발굴을 위해 대전MBC 보도국 전체가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p>			
-----------	--	---	--	--	--